

자본가권력 분쇄!  
불평등세상 타파!  
노동자혁명당 건설!

# 노동자혁명

<https://www.facebook.com/WorkerRevolution>

노동자대회 특보

발행일 : 2021년 11월 13일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 자본가 권력 박살내고 불평등 세상을 뒤집자!

불평등 세상을 뒤집고 평등사회로 나아가자! 우리 노동자는 이 구호를 이미 30년도 더 전인 '평등사회 앞당기는 전노협' 시절부터 외쳐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위 선진국이 되고 다른 나라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막대한 초과이윤을 뽑아내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의 불평등은 30년 전보다도 더 심화되고 구조화되었다.

한줌의 재벌·자본가들과 부자들이 생산수단과 부동산, 금융자산 등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저들의 공간을 터질 듯이 불려나가는 동안 대다수 노동자 민중은 빈곤과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 해고와 실업, 주거권 박탈, 가난의 대물림으로 내몰려왔다.

당장 지난 2년 코로나 국면을 거치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무급휴직, 비정규직 확대로 빈곤의 나락으로 내던져진 가운데 자본가·부자들은 이윤을 30% 넘게 늘리고 그들의 순자산이 3조 수천억 원 더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불평등 체제가 지금 더 심화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미증유의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 아니다.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말에 시작된 세계자본주의 공황의 고통을 지배계급이 노동자 민중에게 손쉽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 없는 노동자의 저항을 봉쇄하는 데 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써먹었다.

'노동자 민중은 가만히 있으라'며 집회·시위를 불허·금지하여, 싸워야 할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채로 "고통분담" 같은 기만적인 언사조차도 끌어낼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이 공황기에 저항 없이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었다.

나아가 지배계급은 공황의 자본가 책임을 벗겨내서 자연재해 역병 탓으로 모두 돌려 분노의 화살을 빗나가게 하는 데도 코로나 팬데믹을 잘 써먹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노동존중" 정부 문재인 정부가 선두에 서서 했다.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 문재인 자본가 정부는 공황 구제 "긴급자금"으로 기업들에 100조원을 퍼주면서도 노동자에게는 "소득주도 성장" 간판 뒤에서 자신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도 삭감하는 양두구육의 극치를 보여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내걸고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확산을 방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로 전락시켜 죽음의 외주화를 부추겼다.

이렇게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불평등을 더욱 커지게 만든 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집행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

노동자가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투쟁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평등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을 단지 내년 선거 용도로 배치하고 '진보' 정당의 제도권 약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오늘 노동자대회에서 선포와 동시에 전면화해야 할 평등사회 쟁취 투쟁을 대대적인 대중투쟁으로 만들어가는 데 역행하는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불평등 체제 타파 대중투쟁 대신에 "불평등 타파 의제"를 내거는 후보를 지지, 표 몰이하는 선거운동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것은 투쟁을 선포해놓고는 정작 대중행동 없는 선거정국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길이다.

노동자 주체로 이 불평등 체제, 자본가 지배체제를 깨부수고 평등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투쟁, 대중 직접행동이 우리의 원칙이며 동시에 당면의 전술이어야 한다. 선거 기다리지 말고, 선거 이후로 미루지 말고 투쟁으로 쟁취하자,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한 자본가 정부의 집회시위 금지 책동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계속 배치하자.

"거대 양당제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이 진출하여 3당제, 4당제가 된다고 해서 평등사회 쟁취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길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양당제가 아니라 자본가 지배체제다.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그 어떤 투쟁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본가 권력이다. 아니, 비정규직 철폐, 해고 금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 해소, 주거권 등 대중의 처지를 개선하고 현재의 불평등을 줄이는 개량조차도 그것이 대중투쟁으로 제기되면 폭력으로 누르는 자본가 권력이 문제다. "양당제 극복"이라는 선거주의·개량주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투쟁을 가두려는 흐름을 거부해야 한다. 선거가 아니라 당면의 절박한 처지 개선 투쟁, 모든 생존권적 요구투쟁에 불평등 체제 타파/평등사회 쟁취 투쟁을 뗄 수 없이 결합시켜야 한다.

자본가 권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평등사회 쟁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자본주의 불평등 체제를 물리적 힘으로, 무력으로 지탱하고 있는 경찰, 군대, 관료(검찰·사법부를 위시한) 등 억압 국가기구를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혁명적 대중행동으로 분쇄 해체하는 투쟁방향을 채택하고, 이러한 투쟁방향에 선거 전술은 종속되어야 한다. 단지 선언뿐이 아니라 우리가 정녕 평등세상 쟁취투쟁을 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단결—투쟁—승리!

## 우리의 입장

■ 우리 노동자 혁명가들은 한국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는 남한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이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모순 및 국제 계급 투쟁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한다.

■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으로 규정된다. △ 쇠퇴·사멸해가고 있는 자본주의 △ 격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강대국(미, 중, 일, 러, EU) 간 패권쟁투.

우리는 이들 모든 강대국에 반대한다. 이들 제국주의 강대국은 노동자·피억압인민의 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강대국 간의 모든 대립·충돌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입장,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 우리는 이들 강대국의 배외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한다. 또 우리는 각국의 노동자들에게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패배를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 대한민국은 국내외 노동인민을 착취·초과착취 하는 독점 부르주아지 지배의 제국주의 국가다. 남한에 대해 미국이 여전히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남한 국가는 남한 자본가계급 상층부, 즉 독점자본의 집행위원회로서,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가 남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외의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특히 현 문재인 자본가 정부는 신남방 정책·신북방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재벌·대기업의 자본수출과 시장 개척을 통한 제국주의 초과이윤 수탈에 어느 역대 자본가 정부보다도 더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남한 제국주의와 여타의 제국주의(예를 들어 일본 제국주의) 간 모든 분쟁·충돌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

■ 북한은 스탈린주의-돈주(錢主)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자본가 국가다. 이 계급이 국가자본주의 부문과 돈주 지배 장마당( 이른바 “회색지대”)의 혼합 기제를 통해 노동자를 억압·착취하고 있다. 이 모든 억압·착취 기제는 “사회주의”와 “주체” 민족주의 언사들로 위장되어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래로 중국·남한·러시아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대거 유입되면서 북한 국가는 남아 있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요소들마저 폐기해버리는 방향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제국주의 언론과 스탈린주의자들이 김정은 정권을 “사회주의 국가” 또는 모종의 “노동자 국가”로 색칠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 지배계급은 이미 맑스주의 겉포장과 언사마저도 내던져 버린 지 오래고, 지금은 코리아 민족주의를 가부장제적 가족 국가관과 뒤섞은 반동적 이념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달리, 북한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낙후된 가난한 반(半)식민지 국가다. 한국전쟁 이후 역사적으로 북한은 미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계급의 도발·침략에 직면해 있다. 보다 최근에는 중국 제국주의로부터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 우리는 모든 형태의 도발·침략 - 경제제재, 군사적 위협 등 - 에 반대하여 북한을 방어한다. 우리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해 투쟁하지만, 미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계급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무장해제(핵 군비철폐, 군축 등)를 압박하는 것에 반대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옹호한다.

■ 우리는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대중투쟁을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착취와 빈곤과 참사가 체제 내 개혁·개량을 통해 극복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직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권력을 잡는 것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뿌리 뽑고, 해방과 만인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지배계급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넘기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자계급이 평화적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노동자계급은 총파업과 봉기(자본주의 국가기구 분쇄)를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다.

■ 남한의 사회주의혁명은 북한의 스탈린주의-돈주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남한의 독점 부르주아지와 북한의 스탈린주의-돈주 계급에 대항하는 결합된 투쟁이 한반도의 혁명적 통일을 달성하는 길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우리의 투쟁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적 해방투쟁의 떼어 수 없는 일 부리는 점을 직시한다.

■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은 부르주아지의 모든 정파·세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독립·독자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자본·정부와의 협조(노·사·정 사회적 합의, ‘야권연대’ 선거 전술 등, 일체의 계급협조)에 반대하고 비타협적인 계급투쟁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독자화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 억압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노동계급 여성운동 - 소부르주아·부르주아 페미니즘이 아니라 - 이 필요하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직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독립적인 노동자 당을 결성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노동자당들, 계급협조주의 인민전선 당들에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 기회주의와 민족주의에 반대한다. 이들 개량주의 세력은 “반제” “민족자주” 구호로 위장한 사회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사실상 남한 정부·독점자본의 제국주의적 진출(대북경협, 신북방·신남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전쟁을 피할 해결책이라며 군축·평화를 전도하는 모든 형태의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에 반대한다. 군국주의/군사주의를 군축으로 이길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군사주의를 이용하는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지 않고는 군사주의를 없앨 수 없다. 제국주의 정부들에게 군축,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제국주의 정부에게 제국주의적이기를 멈춰달라는, 유해한 환상을 심는 요구다.

■ 우리에게서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당이 필요하다.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이 당은 일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국제 계급투쟁의 떼어 수 없는 일부로 간주하는 당이다. 따라서 이 당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세계당의 일부여야 하며, 일부일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 혁명당을 건설하려는 우리의 투쟁은 국제 혁명조직(새로운 인터내셔널)을 건설하는 것과 병행해서 함께 나아간다.